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①



이상무
세계농정연구원이사장
농업경제학박사
前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원간 『피드저널』로부터 생각지 않았던 원고 청탁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지난 1980년에 제가 1년이 채 못 되는 동안 농수산부 사료과장으로 했던 일들을 조그만 회고담으로 짧게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 뒤 80년대 말에 제가 미국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쌀, 제분, 사료 산업을 비교해서 언급했던 구절, “가축이 먹는 사료 공장이 제일 좋고 빵이나 국수로 만들어 먹는 제분 공장이 다음, 사람이 매일 직접 먹는 쌀 도정공장이 제일 못하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그 근본 원인이 정부 개입의 정도라고 거론한 것입니다. 요컨대 사료산업이 정부규제가 제일 적고 가장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사료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 매일같이 사무실에 손님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여서 이유를 알아보니 사료 원료 구매 시 수입추천을 매 건별로 직접 사료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사료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때 각각 건별로 사료과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사료 유통 중 품질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매 건별로 사료과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개별 사료원료 수입추천 업무는 농협중앙회와 사료협회로 넘겨주고 사료과는 1년간의 쿼터 관리만 하도록 하였고 사료가격을 자율화해서 승인 제도를 없애는 한편 검사결과 행정처분은 사료과가 기준을 정해 시달하고 건별로는 시·도 축정과에서 하도록 이관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타고난 ‘냉탕 체질’이라 약 한 달 만에 당시 ‘온탕’으로 소문났던 사료과를 손님이 거의 없는 ‘냉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이연무, 서기상, 조병대 선배님들과 정동홍, 강기태, 김구현 등등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 다소 미흡하거나 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화’를 실천한 선례로서 저로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이 사료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일입니다. 제 손으로 법안 전문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보직이 감사담당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입법절차

한국 사료산업에 대한 조그만 회고담

는 후임이셨던 김정룡 과장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개정의 요지는 사료산업의 자율화, 현대화, 그리고 안전성의 실질적인 강화에 있었습니다. 즉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저의 전임이셨던 이영래 과장님이 시작한 사료공장 근대화 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키며 사료의 품질 기준을 안전성 위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종전에 다소 애매했던 '이물질' 개념을 '유해물질'로 명백히 한 것이지요. 법안을 마련하느라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사료 관련법 조문을 수집해서 참고하는 한편 국내의 사료공장을 거의 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당사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합사료 공장, 대두박 공장, 어분, 골분, 육골분, 우모분 등등의 단미사료 공장, 인천과 부산의 항만 사일로 시설, 소 비육, 낙농, 양돈, 양계 분야별 축산 농가와 축협조직 등 짧은 시간에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 두고두고 도움이 되었지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선배님들의 충정어린 조언과 성심에서 나온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서울 농대의 한인규 교수님은 전반적인 사료산업의 발전방향과 사료·축산의 연계기술 분야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푸리나의 석준호 선배님은 사료산업의 영업 분야, 이현범 선배님은 사료생산 기술과 품질관리 분야, 미국 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장이셨던 박영인 선배님과 미국 대두협회 한국지부장이셨던 이경원 선배님은 사료원료의 구매와 무역관련 분야, 대한 무지개사료의 원용택 선배님은 사료공장의 하드웨어 분야, 아세아향미의 강형모 선배님은 사료 첨가제와 사료공장의 소프트웨어 분야, 사료협회 전무이셨던 정상조 선배님(이분은 제 가까운 친구인 정상명 현 검찰총장의 친형님입니다)은 사료협회와 이해당사자 집단을 접촉하는 분야 등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제게는 스승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한국단미사료협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동준 선배님입니다. 사료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미사료가 먼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농안기금에서 어분 가공을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서 어분공장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린 일 등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흠족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미사료협회의 발전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료산업은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어느 산업에 못지않은 외형을 가지게 되었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충원되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등 이 분야에서 명실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음껏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르기를 이 조그만 회고담과 함께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㉟